



컨테이너터미널 장치장 운영개선 대책 마련 2006년까지 미지정화물 등 문제 완전 해소 매월 2회씩 장기장치 수출입화물 현황파악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부두 터미널 운영의 효율화와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장치장 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우리 항만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약 35%가 미지정화물(Dummy Cargo)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미리 확정(Booking)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터미널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로서 이에 따른 장기장치 등으로 인해 장치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선사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컨테이너터미널이 대형 화주의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돼 가뜩이나 부족한 항만 장치장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지난해 7월 ISPS Code가 발효되는 등 항만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적정보가 불확실한 화물의 항만내 반입이 지속돼 우리 항만 및 물류체계 전체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부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장치장 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2006년말까지 미지정화물 및 장기장치화물 문제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단기대책으로 먼저 이달부터 매월 2회씩 화주별 장기장치 수출입 화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각 화주별로 원인파악 및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덧붙여 선사, 터미널 운영사, 화주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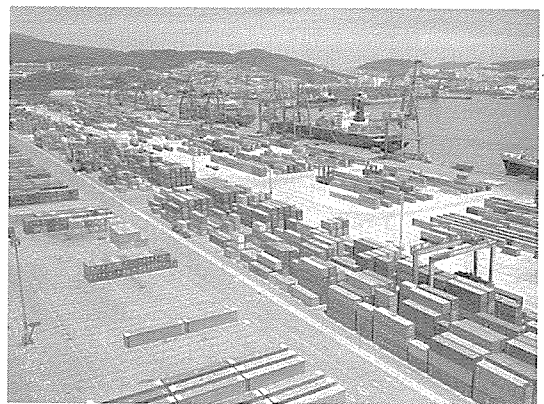
또 올해 시행예정인 컨테이너 평가항목에 장치화물처리실적을 포함시켜 우수터미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각 터미널별로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는 경과보관료 부과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장기장치 화물에 대해선 누진적인 경과보관료를 부과해 장기장치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장치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장기장치화물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항만법을 올해안에 개정해 장기장치화물로 인해 항만 운영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명하거나 대행하기로 했다.

ISPS Code 발효와 관련해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법률’에 미지정화물의 부두반입을 금지시키고 장기장치화물에 대해서는 강제 반출명령 또는 대집행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가칭)보안세를 신설해 장기장치화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장기장치화물 발생량을 줄이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부두내 장기 장치화물에 대해 시범적 반출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 터미널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선적정보가 불확실한 화물의 부두내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터미널 및 선사의 운영상 준비기간 확보, 화주의 사전 대비 등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후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미지정화물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장치화물의 처리가 원활히 이뤄져 부두내 여유공간 확보를 통해 환적화물 등 물량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항만의 물류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 외국 선사의 국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양부는 내다보고 있다.

제2회 대한민국 해양환경대상 시상식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대상 수상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2005년도 제2회 대한민국 해양환경대상에서 단체활동 및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총재 임병석, 썬바운팅그룹 회장)는 5월30일 한리버랜드 독섬선착장 엘페홀에서 '2005년도 제2회 대한민국 해양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해양환경대상 대상에는 제주도 북제주군청(정책연구개발 및 기초자치단체부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단체활동 및 개인부문), 진재운 부산방송 기자(언론미디어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총 3개팀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과 상패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사)해양환경 국민운동조합 등 총 6개팀이 선정되었으며,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 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임병석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해양환경대상은 꾸준한 노력과 헌

신적인 봉사활동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그 공로를 치하하고 활동의욕을 고취시키며 국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제정됐다"며 해양환경대상 제정취지를 밝히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대한민국 해양환경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을 대신에 나온 최장현 차관보도 축사를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상자 명단)

△정책(연구)개발·기초 자치단체 부문 : 대상/ 제주도 북제주군청, 우수상/ 부산시 강서구청, 이수찬(태안경찰서장)

△단체활동 및 개인 부문 : 대상/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우수상/(사)해양환경 국민운동연합, 배동현(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경북본부장)

△언론 및 미디어 부문 : 대상/진재운(부산방송), 우수상/KBS제주 방송총국 해양탐사팀, KBS제주 방송총국 수중촬영팀